

우리나라 여성중소기업의 주거래은행관계와 그 함의

Main-bank relationships of women-owned small and medium firms
in Korea and their implications

김경조*·김태훈**·최진배***

여성기업은 남성기업보다 금융제약에 직면하기 쉬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 여성기업도 그러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까지 이를 실증한 논문은 거의 없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서 이 글은 기술보증기금의 자료를 이용해 우리나라 여성중소기업의 금융거래실태를 실증분석하고 있다. 분석결과는 우리나라의 여성기업도 금융제약에 직면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기업에 대한 고정관념에 기인되는 것으로, 금융기관, 정부, 그리고 여성기업은 그것을 완화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주제어: 여성기업, 남성기업, 금융제약, 고정관념, 관계적 금융

1. 서론

우리나라의 여성기업은 최근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의 『전국사업체 기초통계조사』에 따르면 1997년부터 2005년 사이 여성기업의 연평균 증가율은 3.1%로 남성기업의 증가율 0.8%를 크게 상회하고

* 경성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 교신저자, 경성대학교 디지털비즈니스학부 교수

*** 주저자, 경성대학교 디지털비즈니스학부 교수(jbchoi@star.ks.ac.kr)

있으며, 전국사업체 중에서 여성기업이 차지하는 비율도 2005년 말 현재 35.9%로 1997년(32.4%)에 비해 3.5% 포인트 상승했다. 국민경제에서 점하는 비중이 증대되는 가운데 최근 여성기업은 기술혁신과 일자리 창출의 주역으로서도 주목받고 있다(김영옥, 1998; 강혜련, 2003). 정부도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고 여성기업의 발전을 위해 여성부를 신설하고 여성 중소기업의 정책자금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등 여러 가지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이 연구는 여성기업의 금융기관 거래실태를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여성기업은 남성기업에 비해 금융기관 신용에 접근하는 데 제약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자료에 접근하기 어려워 그 실태를 명확히 파악하기란 쉽지 않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서 여기서는 여성기업의 금융기관 거래실태가 남성기업의 그것과 얼마나 다른지를 검토하는 데 중점을 둔다.

우리나라의 여성기업지원법률 제2조는 여성기업을 여성이 당해 기업을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으로 정의하고 있다.¹⁾ 여성기업 중에는 명목상으로는 여성이 소유하고 있지만 사실상의 경영자는 남편 등 남성인 기업도 있다. 그러나 이를 정확히 가려내기는 사실상 어렵다. 전국사업체 기초통계조사를 담당하고 있는 통계청이 여성기업을 여성이 법적 대표자로 되어 있는 경우로 정의하는 것도 이러한 어려움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이 글에서도 여성기업을 여성이 소유하고 경영하는 기업으로 정의하는데, 이러한 정의는 이 글에서 이용하는 표본기업 대부분이 중소기업으로 소유와 경영이 통합되어 있는 점까지도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에서 이용하는 표본기업은 기술보증기금의 자료이며, 이를 여성기업과 남성기업으로 구분하여 남성기업을 대조기준으로 삼는

1) 기업에 대한 정의는 나라마다 다소 차이가 있다. 예컨대 OECD는 기업을 ‘기업을 소유하는 자로서 그 회사를 직접 경영하며 재정적 위험을 감수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으며(한국여성개발원, 1998), 헤일먼과 첸(Heilman & Chen, 2003)은 기업을 사업의 주도권을 쥐고 그것의 경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지분의 50% 이상 소유하고 있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는 전문경영자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는 점에서 OECD의 정의보다 포괄적이다.

다. 여성기업과 남성기업 간 비교를 위해 이 글은 분할표(Contingency Table)의 χ^2 검정을 수행했다. 이 글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서론에 이어 제2절에서는 여성기업의 자금조달과 관련된 기존논의를 검토한다. 제3절에서는 실증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있으며, 4절에서는 이상의 논의를 요약하고 정리한다.

2. 기존 논의의 검토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필요한 자금을 자본시장에서 조달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은행대출은 외부금융으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동일한 사정은 여성기업에게도 적용된다. 이들 중 압도적인 다수가 중소기업에 속하기 때문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최근에는 여성기업이 금융기관 신용에 접근할 때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일국 경제에서 여성기업이 점하는 비중이 갈수록 증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성기업이 금융기관 신용에 접근할 때 차별적인 대우를 받고 있는나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무엇보다 차별이 존재한다는 명백한 객관적인 자료는 존재하지 않지만 여성기업인과의 면담은 차별이 존재한다는 주관적인 증거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여기에는 여성기업이 금융업자로부터 차별을 받고 있는지를 실증하는 것 자체가 용이하지 않다는 사정도 가세하고 있다. 대출을 결정하는 여러 요인들 중에서 성(性)을 배제하는 것이 곤란하기 때문이다.

카터와 로사(Carter & Rosa, 1998)는 금융과정의 다음 네 영역에서 여성이 특별히 곤란을 겪는다고 말한다. 창업자금의 조달, 사업을 지속하기 위한 금융조달(이는 여성기업이 비공식적인 금융네트워크에 진입하기 곤란하기 때문이다), 개인자산 그리고 신용이력의 범위를 초과하는 담보 제공,²⁾

2) 이는 대출조건 문제인데, 콜먼(Coleman, 2000)은 여성기업에게 보다 높은 이자율이 부과된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한다.

그리고 여성기업인과 은행가 간의 좋지 않은 관계(이는 고정관념과 차별 때문이다)가 그것이다. 대부분의 연구는 여성기업이 창업자금으로 개인저축, 가족의 자금, 신용카드 등에 많이 의존한다는 데 동의한다. 창업자금 조달원천을 조사한 전방지(2002)도 우리나라 여성기업의 창업자금에서 금융기관 차입이 접하는 비중은 매우 미미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이 다르다. 말로와 패튼(Marlow & Patton, 2005)은 차별 때문에 여성기업이 외부금융에의 접근이 매우 제약되어 있어 개인자산만으로 창업하고 외부금융은 없거나 최소한에 머무른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카터 등(Carter et al., 1997)은 공식적인 대출원천에의 접근에서 성별 간 차이가 없다고 주장한다.

적은 창업자본은 여성기업의 규모와 성장성에 영향을 미치는데(Marlow & Patton, 2005; Coleman, 2000; Boden & Nucci, 2000; Carter & Peter, 1998; 나중덕·김승호·최락열, 2004), 이는 사업을 지속하기 위한 금융조달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³⁾ 그뿐만 아니라 여성기업의 금융적 네트워크가 비효율적이거나 취약하여 금융기관의 신용에 접근하는 데 곤란을 겪을 수 있다(Carter & Peter, 1998; Coleman, 2000; Orban, 2001). 콜먼(Coleman, 2000)은 대출자가 남녀기업 간 차별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남성기업에 대한 대출보다 높은 이자율을 부과하며, 서비스업의 경우 여성기업이 남성기업보다 담보를 많이 제공한다고 주장한다. 페이와 윌리엄스(Fay & Williams, 1991)도 담보부족 때문에 여성기업이 대출받기 어렵다고 말한다. 마지막으로 셰퍼(Shaffer, 1998)와 말트비(Maltby, 1996)는 고정관념과 차별 때문에 여성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데 제약이 존재한다고 말한다.

여성기업이 차별을 받는지에 대해서는 연구자들 사이에 의견이 엇갈

3) 카터와 피터(Carter & Peter, 1998)는 사업을 지속하기 위한 대출신청에 대해 은행의 거절비율이 성별 간 차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거절사유는 다르다. 남성의 경우 사업부문, 교육 등이 사유로 지적되었으며, 여성의 경우 사업이력이나 경험, 가정형편 등이 사유로 지적되었다.

린다.⁴⁾ 그러나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는 데 여성기업이 남성기업보다 더 많은 곤란을 겪고 있느냐 하는 문제를 검토할 때 우리는 조금 신중해질 필요가 있다. 이하에서는 이 문제를 다음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하나는 여성기업의 특성 또는 특질과 관련된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고정관념과 같은 사회적인 문제이다.

여성기업의 특징으로 우리는 먼저 그것이 소규모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금융기관 신용에의 접근을 어렵게 하는 중요한 요인의 하나이다. 금융기관은 중소기업의 경우 위험이 높다고 인식하는데, 재무적 투명성도 낮아 신용을 평가하기도 어렵다. 나아가 대출비용이 높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이 금융기관에게는 경제적이지 않을 수 있다.⁵⁾ 다음으로 창업 이전 고용되었을 때 임금수준은 금융적 자본 획득에 영향을 주는데, 여성의 경우 평균임금이 낮아 금융적 자산의 획득에 제약이 있다. 소규모 창업자본은 이후의 성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Boden & Nucci, 2000). 따라서 사업을 계속하기 위한 자금의 조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셋째, 여성은 창업 이전 경영경험이 부족하고 총고용기간도 부족하여 인적자본의 양과 질에서 남성과 다르다. 그리고 학부과정에서 상경계나 공학계 교육을 받은 경험이 적은 대신 인문 분야교육을 주로 이수하며 경력이 종종 단절되기 때문에 금융기관 신용에 접근하는 데 제약이 생길 수 있다(Carter et al., 1997; Boden & Nucci, 2000; 강혜련, 2003). 특히 여성기업과 같은 소규모기업의 신용을 평가할 때 금융기관은 비재무적 정보에 비교적 높은 비중을 두게 되는데 여성기업인의 이러한 특성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넷째, 여성은 자신

4) 여성기업이 금융기관 신용에 접근할 때 차별을 받는지에 대한 포괄적인 검토로는 Carter & Rosa(1998)와 함께 Lascocco, Robinson & Allen(1991), Buttner & Rosen(1992), Carter et al.(1997), Carter & Peter(1998), Haynes & Haynes(1999), Coleman(2000), Orban(2001) 등을 참조.

5) 그린(Green, 2003)에 따르면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의 높은 비용은 대출자들이 기대하는 위험 프리미엄과 평가와 감시에 따른 고정비용이라는 두 가지 요인에서 기인한다.

의 이름으로 자본을 축적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다. 따라서 담보로 제공할 자산이 부족하게 될 뿐 아니라, 은행신용에 접근하기 위해 필요한 신용이력(credit track record)의 창출도 제한되게 된다(Marlow & Patton, 2005). 다섯째, 여성기업은 소매업과 서비스업에 편재되어 있는데, 이들 산업은 경쟁이 심하면서 노동집약적이며 저성장산업이다(Anna et al., 2000; Coleman, 2000; Heilman & Chen, 2003, 김경조·최진배, 2007). 그리고 서비스업은 창업 후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자산이 적어 금융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담보가 많지 않다. 이러한 특성도 금융기관 신용에의 접근을 일정하게 제약할 수 있다(Orban, 2001; Marlow & Patton, 2005). 마지막으로 여성기업의 사회적 네트워크가 취약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특히 은행원과 사회적 상호작용의 부족 내지 결여는 사업을 지속하기 위한 금융조달의 어려움을 야기한다(Carter & Peter, 1998). 콜먼(Coleman, 2000)은 여성기업이 비공식적인 금융적 네트워크에 침투가 곤란한 이유를 경험부족에서 찾고 있는데, 그는 여성기업이 남성기업에 비해 네트워크가 비효율적이어서 정보나 자본원천에 똑같이 접근할 수 없고 그 결과 차별을 당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사회적 네트워크의 취약성은 여성기업인에게 오해를 불러올 수도 있다. 오르번(Orban, 2001)에 의하면 금융기관의 대출거절에 대해 여성기업은 남성기업보다 차별의 탓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금융업에 종사하는 사람과 여성기업인 간에 의사소통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이다.⁶⁾

여성(기업)이 지니는 이러한 특성은 명백하게 금융기관 신용의 접근에 제약요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자면 이를 차별이라고 말하기는 힘들다. 여성기업이 금융제약에 직면할 수 있는 또 다른 요인으로 여성기업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나 고정관념이 중시되는 것은 이와 관련이 깊다. 사회적 편견 또는 차별문제와 관련해 셰퍼(Shaffer, 1998)는 일부 은행들이 개별 대출신청자의 상환능력이나 의지와 직접적인 연관이

6) 그리고 그는 남성 위주의 기업문화가 여성기업인이 의도되지 않지만 공평한 대우를 받지 못한다는 생각을 갖게 할 수도 있다고 말한다.

없는 관찰 가능한 특성—인종, 성, 연령—에 의거하여 신용분석에 조건을 부여하기도 한다고 주장한다. 금융기관의 대출관행이나 대출담당자의 여성기업인에 대한 인식도 기업가의 성이 대출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말트비(Maltby, 1996)에 의하면 특히 은행들의 여성기업 대출에 대한 ‘심리적 저항’이 존재하는데, 이때 객관적인 측면의 주관적인 해석과 평가, 고정관념, 성 역할 등의 주관적인 측면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심지어 은행은 남편의 보증을 요구하기도 하며, 여성의 사업을 진지하게 생각하지도 않는다. 즉, “대출자들과 공급자들은 여성기업을 여성의 취미생활 정도로 간주한다. 여성은 실제로 (사업에 대해) 진지하지 않고 실질적인 돈은 남편이 벌며, 여성은 (자신의 생활에) 염증을 느껴 (사업을) 해보는 것이다”(Maltby, 1996). 페이와 윌리엄스(Fay & Williams, 1991)도 창업단계에서 대출신청자 간 유일한 차이가 성(性)일 경우 대출담당자가 여성기업을 차별할 수 있으며, 이러한 차별이 성별 역할에 관한 고정관념과 남성기업문화를 반영한다고 주장한다. 앞에서 우리는 여성기업의 특성 중 하나로 여성기업의 사회적 네트워크가 취약하다고 말했다. 그런데 브러시(Brush, 1992)는 이 또한 성에 대한 고정관념 및 차별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한다.

고정관념은 여성(기업)의 특성 파악에도 영향을 미친다. 여성은 초기의, 그리고 지속적인 사회화과정의 변이에 기인하여 남성과는 상이한 자질과 가치와 사고방식을 갖게 되는데, 가치가 의도에 영향을 미치므로 상이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이상 성장의지나 전략도 성별로 다르게 된다(Carter et al., 1997; Buttner & Moore, 1997; Anna et al, 2000). 그런데 남성 위주의 기업문화가 지배하는 상황에서 이는 기업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고정관념이 여성기업의 평가에 미치는 문제는 여성이 지니는 위험회피성향에 대한 평가에서 잘 드러난다. 왓슨과 로빈슨(Watson & Robinson, 2003)에 의하면 “여성은 위험 회피적이며 안전을 위해 최악의 상황을 회피하려는 전략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다.”) 여성의 위험회피적인 성향은 남성과 상이한 재무적 전략을 취하게 한다. 그런데 이것

이 성과에 영향을 미치지지는 않지만 전략의 차이는 여성기업인의 재무적 경영능력이 취약하다는 고정관념을 강화할 수 있다(Powell & Ansic, 1997). 이러한 평가가 금융기관 신용에의 접근을 제약하게 되는 것은 물론이다.

이충희(2001)는 우리나라 금융기관 종사자들 중에는 여성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고 하면서 이 자체가 여성기업에 대한 금융기관의 차별적인 태도에 대한 반증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은 여성기업이 금융거래의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여성이라는 이유로 자사의 신용도를 낮게 평가받고 있다’는 점을 가장 많이 지적했다는 중소기업청과 한국여성경제인협회의 실태조사 결과에 의해서도 지지되는 것으로 보인다.⁸⁾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여성기업이 금융기관의 신용 접근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는 객관적인 증거는 아직까지 제시된 바 없으며, 이를 규명하려는 시도도 없었다.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금융기관 신용에 접근할 때 여성기업이 차별을 받고 있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국내외적으로 제시된 적이 없다. 앞으로 실태조사 이외의 방법으로 이렇게 민감한 문제에 접근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서 이 글은 기술보증기금에서 보증지원을 받은 적이 있는 우리나라 남부기업의 주거래은행관계를 비교하는 방법으로 이 문제를 검토하려 한다. 이는 매우 불충분한 시도이다. 그러나 기업의 금융기관 차입현황이나 대출조건 등

7) 여성기업은 더 이상 확대하지 않으려는 최대사업규모 값(maximum business size thresholds)을 가진다는 클리프(Cliff, 1998)의 주장도 여성기업인이 위험회피성향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우리나라의 여성기업인도 위험회피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중소기업은행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여성기업인은 안정성 위주로 경영한다고 응답했다(김영옥, 1998). 그리고 재무관리에서 가장 중시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문조사에 우리나라의 여성기업인은 안전성(64%), 수익성(22%), 성장성(14%)의 순서로 응답했다(한국여성개발원, 1998).

8) 금융기관 이용 시 남성보다 불리하다고 응답한 여성기업 중에서 ‘여자라서 신용도를 낮게 평가’한다고 응답한 여성기업은 2000년도에는 32.7%, 2004년도에는 42.1%에 이르고 있다(중소기업청·한국여성경제인협회, 2005: 80 참조).

이 거의 공개되지 않는 현 상황에서 여성기업의 차별문제를 탐구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3. 분석방법과 그 결과

1) 분석방법

우리나라 남녀기업의 주거래은행관계를 분석함에 있어 이 글에서는 남녀기업의 거래은행 수, 이들의 주거래은행, 그리고 금융기관 주거래기업의 종업원 규모의 분석에 중점을 둔다.

기업은 다수의 은행과 거래하는 것이 유리하다. 샤프(Sharp, 1990), 라잔(Rajan, 1992)이 주장하듯이 강탈문제를 회피할 수 있으며 거래은행의 신용공급 제한에 따른 유동성 위험을 완화할 수 있고, 특히 자신이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의 질에 대한 정보를 공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글의 표본기업과 같이 규모가 영세하고 재무적 투명성이 낮은 중소기업의 경우 관계적 금융을 활용하는 은행에 거래를 한정하는 것이 유리하다. 데그리세 카이세엘레(Degryse & Cayseele, 2000), 히메네스와 사우리나(Jimenez & Saurina, 2004)에 의하면 기업과 은행 간 관계의 강도는 기업이 거래하는 은행의 수로 추정할 수 있는데, 이때 그들은 은행이 관계적 금융을 활용하는 경우 거래하는 은행의 수가 적을수록 재무투명성이 취약한 중소기업은 금융제약을 좀 더 용이하게 완화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있다.⁹⁾

이상의 논의에서 우리는 만약 관계적 금융을 활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거래은행이 소수에 불과하다면 그 기업은 금융기관신용에 접근하는 데 일정한 제약이 있는 기업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동일한 논

9) 관계적 금융에 대한 기존 논의의 검토로는 최진배·김태훈(2007a) 참조.

리는 여성기업에도 적용될 수 있다. 남성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을 뿐만 아니라, 2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은행은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고 대출담당자는 여성기업 대출에 대해 심리적으로 저항할 수 있기 때문이다.¹⁰⁾ 콜먼(Coleman, 2000)과 말트비(Maltby, 1996)가 여성기업이 금융 제약에 직면할 수 있다고 하면서 이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은행이 여성기업에 대해 관계적 금융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말트비(Maltby, 1996)는 은행이 여성기업에게 융자뿐 아니라 상담과 교육, 네트워크 기회까지 제공할 것을 제안한다. 즉,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대출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 교육, 지원, 네트워크 등에 대한 조언과 관계도 필요하다. 믿거나 말거나 이러한 종류의 서비스는 소기업과 은행의 새로운 관계의 핵심에 있다”(Maltby, 1996).

이상의 주장이 타당성을 지니려면 우리나라 은행이 관계적 금융을 활용하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는 이 글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염두에 두고는 있지만 직접 다루지는 않는다.¹¹⁾ 여성기업의 금융거래실태를 분석할 때 우리는 남녀기업의 주거래은행과 주거래기업의 규모별 현황분석에 중점을 둔다. 주거래은행을 살펴볼 때 우리는 금융기관들이 남녀기업 어느 쪽에 비중을 두고 주거래관계를 맺는가에 초점을 맞춘다. 주거래관계는 기업과 은행 양측이 선택한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금융기관 신용에 접근하기 곤란한 중소기업, 특히 여성중소기업의 경우 금융기관의 선호가 더 중요하게 반영될 수 있다. 주거래은행 여부는 관계적 금융의 대용변수로 이용되기도 한다.¹²⁾ 이때 중시되는 점은 금융기관이 규모가 작은 기업을 주거래기업으로 하고 있는 정도

10) 콜먼(Coleman, 2000)에 의하면 은행은 여성기업에게 보다 적은 대출금 규모에 보다 높은 이자율을 부과하고 담보요구도 높다. 그리고 은행은 여성기업과의 거래기간도 짧다.

11) 우리나라 금융기관의 관계적 금융 활용 여부에 대한 검토로는 서근우(2003), 김현정(2003), 강종구(2005), 함준호·강종구(2005) 등을 참조.

12) 이에 대한 논의로는 최진배·김태훈(2007b) 참조.

이다. 중소기업으로서 재무투명성에 차이가 없다면 규모가 작을수록 금융기관 신용에 접근하기가 곤란할 것이므로 은행이 지역에 밀착된 경영을 하면서 관계적 금융을 활용한다면 그 은행의 주거래기업 규모는 다른 은행의 주거래기업에 비해 규모가 작을 것이다. 그런데 만약 관계적 금융을 활용할 것으로 기대되는 지역금융기관이 보다 규모가 큰 중소기업 특히 여성중소기업과 주거래관계를 맺고 있다면 이 금융기관은 주거래관계를 맺을 때 선별적으로 대응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만약 어떤 금융기관이 전체적으로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과 주거래관계를 맺고 있지만 여성기업의 경우 보다 규모가 큰 기업과 주거래관계를 맺고 있다면 이 금융기관 또한 여성기업에 대해 선별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론적으로 관계적 금융은 주로 지방은행과 서민금융기관(상호저축은행과 신용협동기구가 여기에 속한다)과 같은 지역금융기관이 활용하므로 이하에서는 은행을 전국은행과 지방은행으로 구분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그리고 기존의 논의에 따르면 표본기업과 같은 중소기업의 주거래은행에서 중소기업은행과 국민은행이 접하는 비중이 특히 높다.¹³⁾ 이에 여기서는 전국은행을 두 은행을 제외한 전국 기타와 은행 1, 은행 2로 세분하기로 한다. 한편 1998년 금융구조조정과정에서 일부 지역에서 지방은행이 퇴출되었기 때문에 지역을 지방은행이 있는 지역과 없는 지역으로 구분하여 검증하기로 한다.

2) 표본의 특징

이 글에서 사용하는 자료는 기술보증기금의 개별 기업자료이다. 기술보증기금은 보증을 제공할 때에만 자료를 갱신하기 때문에 개별 기업자료를 파악한 시점이 일정하지 않은데, 필자들이 자료를 입수한 시점은

13) 이는 거의 전국적인 현상으로 보이는데 인천·경기지역과 대전·충남지역의 현황에 대해서는 최진배·김태훈(2007c) 참조.

<표 1> 업종 간 성별차이 분석(개, %)

업종	남녀기업	여성기업	남성기업	전체
제조업	빈도	2,497	42,907	45,404
	기대빈도	2,806.60	42,597.40	45,404
	업종의 %	5.50<16.5>	94.50<83.5>	100
	수정된 잔차	-12.1	12.1	-
도소매업	빈도	1,237	13,766	15,003
	기대빈도	927.40	14,075.60	15,003
	업종의 %	8.25<38.4>	91.75<61.6>	100
	수정된 잔차	12.1	-12.1	-
계	빈도	3,734	56,673	60,407
	기대빈도	3,734	56,673	60,407
	업종의 %	6.18	93.82	100

주: 1) < > 내는 통계청의 전국사업체 기초통계조사(2005)의 남녀기업별 구성비.
 2) X^2 값은 146.573이며, p-value는 0.0001로 남녀별 업종 비율 간 차이가 있다.

2006년 초이다. 이 글에서 이용하고 있는 자료는 1998년 이후 자료이며, 전체 표본 수는 총 6만 8,091개로 여성기업이 4,151개(6.1%), 남성기업이 6만 3,940개(93.9%)이다. 전체 표본은 다양한 업종의 기업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통계적 유의성을 위해 제조업과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기업만을 분석대상으로 한다. 두 업종의 남성기업과 여성기업 간 차이는 <표 1>에 정리되어 있다. 한편 전체 표본에서 여성기업이 점하는 비중은 우리나라 전체에서 점하는 비중에 미치지 못하는데, 업종별로도 그러하다.

표본기업을 업종별 및 종업원 규모별로 세분해서 보면 전체적으로 종업원 50인 미만의 기업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종업원 10인 미만의 기업이 50%를 상회하고 있다. 여성기업의 종업원 규모는 남성기업보다 소규모이다. 업종별로 보면 업종의 특성을 반영하여 도소매업이 제조업보다 종업원 규모가 작다. 즉, 도소매업의 경우 종업원 10인 미만의 기업이 전체의 80% 가까이 점유하고 있지만 제조업의 그것은 45%에 미치지 못한다. 업종별로 세분해서 살펴보아도 여성기업

< 표 2 > 표본기업의 종업원 규모별 구성비(%)

구분		0~4인	5~9인	10~19인	20~49인	50~100인	101 이상	합계
제조업	여성기업	20.4	29.4	25.5	18.4	4.3	2.0	100.0
	남성기업	17.4	25.1	25.8	21.1	6.6	3.9	100.0
	계	17.6	25.3	25.8	21.0	6.5	3.8	100.0
도소매업	여성기업	59.7	27.3	9.8	2.7	0.3	0.1	100.0
	남성기업	48.8	30.2	14.2	5.6	1.0	0.3	100.0
	계	49.7	30.0	13.8	5.3	0.9	0.2	100.0
계	여성기업	32.2	28.7	21.2	13.5	3.1	1.4	100.0
	남성기업	24.0	26.1	23.7	17.7	5.4	3.1	100.0
	계	24.5	26.3	23.5	17.5	5.2	3.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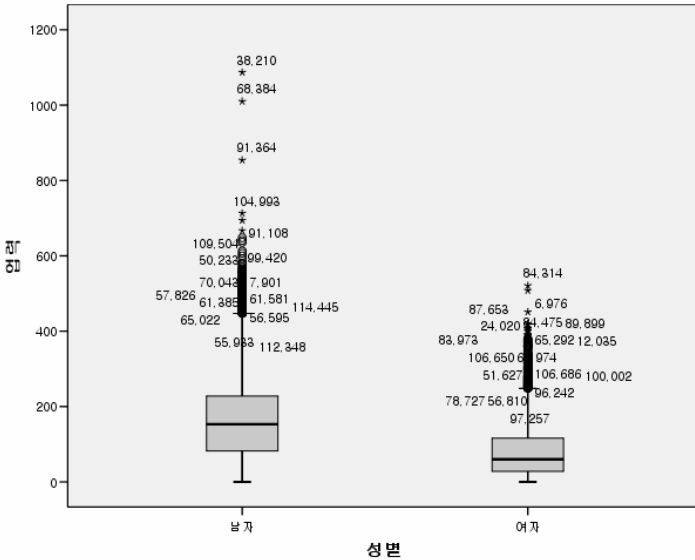
< 표 3 > 표본기업의 매출액 현황(원)

성별	통계량	
	남자	평균
	중위수	1,000,000,000
여자	평균	1,881,664,731
	중위수	700,000,000

은 남성기업에 비해 영세한 편이다. 여성기업은 종업원 규모뿐 아니라 매출액에서도 남성기업에 미치지 못한다. 여성기업의 이러한 특성은 표본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것은 아니며, 국내외 연구에서도 확인되고 있다(전방지, 2002; 김영옥·임희정, 2006; 김경조·최진배, 2007; Cliff, 1998; Rietz & Hendekson, 2000; Coleman, 2000). 한편 여성기업의 작은 규모는 초기자본이 작은 데 기인한다고 알려져 있다.¹⁴⁾ 그러나 이 글에서 사용하는 표본에는 초기자본의 규모가 명기되어 있지 않아 여성기업의 상대적 영세성이 무슨 요인에 기인하는지 파악하기 어렵다.

14) 그리고 작은 초기자본은 규모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다시 여성기업의 성장, 기술혁신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다. 말로와 패튼(Marlow & Patton, 2005), 콜먼(Coleman, 2000), 카터와 피터(Carter & Peter, 1998) 및 나중덕·김승호·최낙열(2004) 참조.

<그림 1> 남녀기업 간 업력의 상자도표



한편 두 업종에 종사하는 남녀기업의 업력을 비교해보면 남녀기업 간 유의한 차이가 존재한다. 먼저 남성기업의 업력은 평균 160개월로 평균 82개월인 여성기업보다 2배 정도 긴 업력을 가지고 있다.¹⁵⁾ 그리고 남성기업의 경우 업력 10년 이하의 기업이 전체의 50.4%를 점하고 있지만 여성기업의 경우 점유율은 61.1%에 이르고 있다. 업종별로 보아도 제조업과 도소매업 모두에서 여성기업의 업력이 남성기업에 비해 짧은 편이다. 한편 제조업보다는 도소매업에서 업력 10년 이하의 기업이 점하는 비중이 높다. 경제구조가 소프트웨어되고 여성의 경제활동이 활성화되고

15) 남녀기업별 업력 간 차이 분석을 위해 t-검정을 수행했다. t값은 64.118이며, 유의확률은 0.0001이다. 한편 표본의 업력은 남녀기업 모두 우리나라 남녀기업 평균을 상회하는데, 2004년 현재 우리나라 여성기업의 평균업력은 4.83년, 남성기업의 그것은 7.40년이다. 김영옥·임희정(2006) 참조. 한편 외국의 연구에서도 여성기업의 업력은 남성기업의 업력에 비해 짧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대한 검토로는 김경조·최진배(2007) 참조.

있다는 일반적인 사정에 더하여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이 상시화하면서 남편의 직장에 대한 불안이 높아지고 대졸자의 취업난이 심해졌다는 점 등이 여기에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¹⁶⁾

3) 거래은행의 수

전체적으로 볼 때 표본기업의 39.1%는 주거래은행하고만 거래하고 있으며, 2개의 은행과 거래하는 기업의 비중은 36.7%로 두 번째로 높은 빈도를 나타내고 있다. 기업주의 성별로 구분해보면 여성기업의 42.2%와 남성기업의 38.8%가 주거래은행하고만 거래하고 있다. 남성기업은 여성기업에 비해 거래하는 은행의 수가 많은 편이다. 업종별로 나누어서 살펴봐도 기업주의 성별에 따라 거래은행 수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난다. 제조업에 종사하는 여성기업의 경우 주거래은행하고만 거래하는 기업의 비중은 39.9%로 남성기업보다 3.2% 포인트 높고, 도매 및 소매업에 종사하는 여성기업의 경우에도 남성기업보다 2.3% 포인트 높다. 그리고 여성기업은 업종에 관계없이 남성기업에 비해 거래은행 수가 적다. 이는 여성기업이 남성기업에 비해 금융제약에 직면할 수 있음을 함의한다.

이러한 결과는 중소기업은행이 2001년도에 실시한 여성기업 금융거래실태조사 결과에서도 확인되는데, 조사 대상 기업의 39.2%(제조업은 43.4%, 도소매업은 29.4%)는 하나의 금융기관하고만 여신거래를 하고 있으며, 2개의 금융기관과 거래하는 기업은 38.3%(제조업은 38.5%, 도소매업은 37.3%)이다(이충희, 2001 참조). 그런데 이충희(2001)는 이를 여성기업이 여신거래 금융기관에 대해 충성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여성기업이 남성기업에 비해 금융기관 신용에의 접근이 제약되어 있다면 그리고 여성기업의 경영성과가 남성기업의 그것과 차이가 없다면 이는 여성기업의 금융제약을 표현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여성기

16) 우리나라의 논의로는 김영옥(1998),곽성호·신용하(2000), 강혜련(2003), 중소기업청·한국여성경제인협회(2005) 참조.

<표 4> 남녀기업의 거래은행 수

거래은행 수		남녀기업		
		남성기업	여성기업	전체
1	빈도	24,840	1,752	26,592
	기대빈도	24,970.88	1,621.12	26,592
	수정된 잔차	-4.30	4.30	-
2	빈도	23,425	1,580	25,005
	기대빈도	23,480.63	1,524.37	25,005
	수정된 잔차	-1.85	1.85	-
3	빈도	10,611	567	11,178
	기대빈도	10,496.56	681.44	11,178
	수정된 잔차	4.95	-4.95	-
4	빈도	4,755	238	4,993
	기대빈도	4,688.61	304.39	4,993
	수정된 잔차	4.08	-4.08	-
5	빈도	309	14	323
	기대빈도	303.31	19.69	323
	수정된 잔차	1.33	-1.33	-
전체	빈도	63,940	4,151	68,091
	기대빈도	63,940	4,151	68,091

주: X^2 값은 51.025이며, p-value는 0.0001이며, 거래은행수를 순서자료로 사용한 검정통계량 M^2 은 45.194(p-value=0.0001)로써, 남녀기업별 거래은행 수 비율 간 차이가 있다.

업이 금융제약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은 금융기관이 여성기업을 상대적으로 차별할 수 있다는 것을 함의한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점에 주목하면서 여성중소기업의 주거래은행과 금융기관별 주거래기업을 구체적으로 검토해보기로 한다.

4) 주거래은행 현황

표본기업 중 전국 기타를 주거래은행으로 하고 있는 기업이 전체의 41.3%를 점유하고 있으며, 은행 2(27.39%)와 은행 1(18.4%)이 뒤를 잇고

<표 5> 남녀기업의 주거래은행

주거래은행		남녀기업		
		남성기업	여성기업	전체
전국 기타	빈도	24,606	1,618	26,224
	기대빈도	24,606.44	1,617.56	26,224
	수정된 잔차	-0.01	0.01	-
지방은행	빈도	6,420	393	6,813
	기대빈도	6,392.76	420.24	6,813
	수정된 잔차	1.45	-1.45	-
서민	빈도	906	119	1,025
	기대빈도	961.78	63.22	1,025
	수정된 잔차	-7.30	7.30	-
은행 1	빈도	10,975	692	11,667
	기대빈도	10,947.35	719.65	11,667
	수정된 잔차	1.18	-1.18	-
은행 2	빈도	16,618	1,091	17,709
	기대빈도	16,616.67	1,092.33	17,709
	수정된 잔차	0.05	-0.05	-
전체	빈도	59,525	3,913	63,438
	기대빈도	59,525	3,913	63,438

주: X^2 값은 55.455이며, p-value는 0.0001로써, 남녀별 주거래은행 거래 비율 간 차이가 있다.

있다. 지방은행을 주거래은행으로 하고 있는 기업은 10.7%이지만, 서민 금융기관을 주거래은행으로 하고 있는 기업은 1.6%에 불과하다. 이는 기업금융시장에서 서민금융기관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은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다.

남녀기업별 주거래은행을 보면 서민금융기관과 은행 1을 제외하면 특별한 차이가 없다. 전자의 경우 여성기업의 비중이, 후자의 경우에는 남성기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그러나 업종별로 보면 은행별로 차이가 다소 명확해지는데, 제조업의 경우 지방은행과 은행 1의 주거래기업에서 남성기업이 접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전국 기타와 서민금융

< 표 6 > 업종(레이어)별 남녀기업별 주거래은행

업종	주거래은행		남녀기업		전체
			남성기업	여성기업	
제조업	전국 기타	빈도	15,181	910	16,091
		기대빈도	15,193.47	897.5315	16,091
		수정된 잔차	-0.54289	0.542891	-
	지방은행	빈도	4,720	249	4,969
		기대빈도	4,691.837	277.1633	4,969
		수정된 잔차	1.852253	-1.85225	-
	서민	빈도	466	50	516
		기대빈도	487.2183	28.7817	516
		수정된 잔차	-4.09507	4.095066	-
	은행 1	빈도	7,221	399	7,620
		기대빈도	7,194.968	425.032	7,620
		수정된 잔차	1.433965	-1.43396	-
	은행 2	빈도	12,650	769	13,419
		기대빈도	12,670.51	748.4914	13,419
		수정된 잔차	-0.93202	0.932018	-
	전체	빈도	40,238	2,377	42,615
		기대빈도	40,238	2,377	42,615
	도소매업	전국 기타	빈도	6,089	510
기대빈도			6,056.056	542.9438	6,599
수정된 잔차			2.027382	-2.02738	-
지방은행		빈도	1,287	120	1,407
		기대빈도	1,291.237	115.7633	1,407
		수정된 잔차	-0.43333	0.433333	-
서민		빈도	322	58	380
		기대빈도	348.7349	31.26514	380
		수정된 잔차	-5.06001	5.060005	-
은행 1		빈도	2,567	221	2,788
		기대빈도	2,558.613	229.3874	2,788
		수정된 잔차	0.645746	-0.64575	-
은행 2		빈도	2,618	246	2,864
		기대빈도	2,628.36	235.6404	2,864
		수정된 잔차	-0.78961	0.789606	-
전체		빈도	12,883	1,155	14,038
		기대빈도	12,883	1,155	14,038

주: 1) 제조업 레이어의 χ^2 값은 22.064이며, p-value는 0.0001로써, 남녀기업별 주거래은행 거래 비율 간 차이가 있다.

2) 도소매업 레이어의 χ^2 값은 28.088이며, p-value는 0.0001로써, 남녀기업별 주거래은행 거래 비율 간 차이가 있다.

기관은 여성기업의 비중이 높다. 이에 반해 도소매업의 경우에는 전국 기타는 남성기업의 비중이, 서민금융기관과 은행 2는 여성기업의 비중이 높다.

이렇게 서민금융기관과 은행 2의 주거래기업에는 여성기업이, 그리고 은행 1과 지방은행의 주거래기업에는 남성기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그러나 전국 기타는 업종별로 상이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서민금융기관의 대출금 규모, 이자율 등의 대출조건, 그리고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의 종류와 질이 은행에 비해 열악하다. 따라서 기업은 가능하면 은행을 선호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민금융기관의 주거래기업에서 여성기업의 비중이 높다는 것은 여성기업이 은행신용에 접근하는 데 제약이 있음을 함의한다. 그러나 다른 은행의 주거래기업의 성별 특성은 일관성이 부족하다.¹⁷⁾

5) 주거래기업의 종업원 규모 현황

분석결과를 보면 지방은행이 있는 지역에서 기업의 규모에 상관없이 서민금융기관과 은행 2의 주거래기업에서 여성기업이 점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이와는 달리 지방은행의 경우에는 기업의 규모에 관계없이 남성기업의 점유율이 높다. 은행 1의 주거래기업 중 종업원 20인 미만의 소기업의 경우에는 남성기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그러나 50인 이상인 기업에서는 여성기업의 비중이 높다. 은행 1은 여성기업의 규모에 따라 차별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여성기업(특히 규모가 작은 여성기업)은 지방은행과 은행 1의 신용에 접근하는 데 일정한 제약이 있지만, 전국 기타의 경우에는 뚜렷한 성향을 발견할 수 없다.

지방은행이 없는 지역에서도 은행 1은 유사한 성향을 보이고 있다. 즉, 종업원 규모가 50인 미만인 소기업에서는 여성기업의 비중이 상대적으

17) 지역을 지방은행이 있는 지역과 없는 지역으로 구분하여 검증해보았으나 지방은행이 없는 지역의 경우 통계적 유의성이 발견되지 않아 생략했다.

< 표 7 > 남녀기업의 종업원규모별 주거래은행(요약)

구분		여성기업	남성기업
지방은행이 있는 지역	0~4인	서민금융기관, 기업은행	전국 기타, 지방은행, 국민은행
	5~9인	서민금융기관, 전국 기타	지방은행, 국민은행
	10~19인	서민금융기관, 전국 기타, 기업은행	지방은행, 국민은행
	20~49인	서민금융기관, 기업은행	전국 기타, 지방은행
	50~100인	서민금융기관, 국민은행, 기업은행	지방은행,
지방은행이 없는 지역	0~4인	서민금융기관, 전국 기타	국민은행, 기업은행
	5~9인	전국 기타	서민금융기관, 국민은행, 기업은행
	20~49인	서민금융기관, 기업은행	전국 기타, 국민은행
	50~100인	전국 기타, 국민은행, 기업은행	

주: 지방은행 없는 지역의 종업원 10~19인 규모와 101인 이상 규모의 경우 차이가 유의하지 않다.

로 낮지만 50인 이상인 기업에서는 여성기업의 비중이 높다. 이러한 성향은 은행 2에서도 발견되는데, 은행 2의 경우에는 종업원 10인 미만인 기업의 경우 남성기업의 비중이 높으며, 20인 이상인 기업에서는 여성기업의 비중이 높다. 전국 기타는 종업원 20~49인 규모에서만 남성기업의 비중이 높으며, 다른 규모에서는 여성기업의 비중이 높다. 특이한 점은 서민금융기관의 경우로 그것의 주거래은행 중 종업원 5~9인 기업에서 남성기업의 비중이 높다.

4. 요약 및 결론

은행 1과 지방은행의 주거래기업은 대체로 남성기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눈에 띄는 점은 종업원 규모별로 볼 때 은행 1과 지방은행 주거래기업의 경우 소규모일수록 남성기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표본기업의 주거래은행으로

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은행 2에서도 엿볼 수 있다. 은행 2의 경우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지방은행이 퇴출된 지역에서 주거래은행으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만 주거래관계를 맺음에 있어 남성기업에 중점을 두는 것으로 보인다. 전국 기타(지방은행이 없는 지역)와 서민금융기관의 주거래기업의 경우 여성기업의 비중이 이들보다 높은 편이다. 전국 기타가 거래적 금융에 치중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들이 여성기업의 금융제약을 완화하는 데는 일정한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성기업의 경우 서민금융기관을 주거래은행으로 하는 비중이 남성기업에 비해 높다는 것은 여성기업의 금융계약문제가 예상외로 심각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외환위기 이후 거의 모든 은행이 기업의 신용등급을 중시하고 장기적인 거래관계를 맺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여성기업과 같이 규모가 영세하고 금융계약에 직면하기 쉬운 기업일수록 지역에 밀착되어 있는 지방은행과 전통적으로 소기업 금융에 강점을 보이고 있는 은행 1이 주거래은행으로서 좀 더 적극적인 기능을 수행해줄 것이 기대된다. 그러나 위의 분석결과는 이러한 기대를 충족시켜주지 못하고 있다. 이충희(2001)가 제기하듯이 우리나라 금융기관도 미국의 은행들과 마찬가지로 여성기업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한 토대 위에서 여성기업에 대한 금융을 틈새시장으로 개척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 은행들은 관계적 금융을 적극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Maltby, 1996; Coleman, 2000). 정부도 여성기업의 금융제약을 완화해주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특히 말로와 패튼(Marlow & Patton, 2005)이 강조하듯이 여성기업의 경우 담보로 제공할 자원이 부족하고 신용이력도 부족하므로 더욱 적극적으로 신용보증제도를 통해 여성기업의 금융제약을 완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¹⁸⁾ 여성기업도 기업인으로서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남성위주의 기

18) 이러한 문제에 대한 포괄적인 검토로는 김영욱(1998) 참조.

업문화가 단시일 내에 바뀔 수 없고, 사회적 편견이나 고정관념도 쉽게 불식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글의 분석결과가 여성기업이 금융기관 신용에 접근하는 데 남성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지위에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해주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점에서 이 글은 일정한 한계를 지닌다. 그렇지만 전국 표본을 이용해 여성기업과 남성기업의 주거래관계를 분석했다는 것에 일정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 Abstract

Main-bank relationships of women-owned small and medium firms
in Korea and their implications

Kim, Kyung-Jo, Kim, Tae-Hun and Choi, Jin-Bae

It is said that female-owned businesses may confront financial constraints more often than male-owned businesses. We can say that the same story holds true for the Korean female-owned businesses. But no one has studied the difficulties they may experience. Keeping this in mind this paper, through analysing the Korea Technology Credit Guarantee Fund's data, tries to show the main-bank relationships of the female-owned and male-owned businesses in Korea. The results reveal female-owned businesses in Korea may confront financial constraints. That may be due to stereotypes, financial institutions, government and female-business owners should do their best to ease them.

Keywords: female-owned business, male-owned business, financial constraints, stereotypes, relationship banking

참고문헌

강종구. 2005. 「은행의 금융증개기능 약화원인과 정책과제」. 《계간 경제분석》, 11권 3호, 1~32.

강혜련. 2003. 「여성경영자의 관리역량과 기업성과」. 이화여자대학교, 《경영논총》, 21집, 1~19.

곽성호·신용하. 2000. 「남성과 여성 중소기업의 재무적 성과비교」. 《한국중소기업학회지》, 22권 1호, 281~305.

김경조·최진배. 2007. 「여성기업에 대한 국내의 연구동향-이론적 검토」. 《상경연구》, 23권 1호, 21~43.

김영옥. 1998. 『여성의 창업과 기업경영: 현황과 정책과제』. 한국여성개발원.

김영옥·임희정. 2006. 「여성기업의 장애요인에 관한 탐색적 연구」. 《여성연구》, 71호, 107~140.

김현정. 2003. 「외환위기 이후 은행-기업 관계의 변화」. 《금융연구》, 130호, 1~43.

나중덕·김승호·최락열. 2004. 「여성창업기업의 환경 및 경영자 특성. 협력활동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 《중소기업연구》, 26권 1호, 175~201.

서근우. 2003. 『중소기업 금융의 현황과 과제-관계형 금융을 중심으로』. 한국금융연구원.

이충희. 2001. 「여성기업의 금융거래실태와 금융과제」. 《기은조사》, 2001년 겨울호, 43~71.

전방지. 2002. 「여성 중소기업인의 창업과 경영방식-우리나라와 미국의 경험」. 《중소기업연구》, 24권 2호, 61~87.

중소기업청·한국여성경제인협회. 2005. 『2005 여성기업실태조사』.

최진배·김태훈. 2007a. 「부산지역 가계대출과 서민금융기관-서민금융기관에 대한 기대와 과제」. 《지역사회연구》, 15권 2호, 29~55.

_____. 2007b. 「전라북도 지역중소기업의 주거래은행분석」. 《지역사회연구》, 15권 4호, 127~144.

_____. 2007c. 「외환위기 이후 중소기업의 주거래은행관계의 변화: 인천경기지역과 대전충남지역을 중심으로」. 《한국경제지리학회지》, 10권 3호, 281~303.

한국여성개발원. 1998. 『여성창업과 기업경영』.

함준호·강종구. 2005. 「중소기업금융과 은행의 역할: 혁신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계간 경제분석》, 11권 3호, 87~119.

Anna, A. L., Chandler, G. N., Jansen, E. and N. P. Mero. 2000. "Women business owners in traditional and non-traditional industrie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15, 279~303.

- Boden, Jr, R. J. and A. R. Nucci. 2000. "On the survival prospects of men's and women's new business venture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15, 347~362.
- Brush, C. G. 1992. "Research on women business owners: past trends, a new perspective and future directions."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16, No.4, 5~30.
- Buttner, E. H. and D. P. Moore. 1997. "Women's organizational exodus to entrepreneurship: self-reported motivations and correlates with success." *Journal of Small business management* 35 No.1, 34~46.
- Buttner, E. H. and B. Rosen. 1992. "Rejection in the loan application process: male and female entrepreneurs' perceptions and subsequent intentions." *Journal of Small Business Management January*, 58~65.
- Carter, S. and R. Peter. 1998. "The financing of male- and female-owned businesses." *Entrepreneurship and Regional Development* 10, 225~241.
- Carter, S. and P. Rosa. 1998. "The financing of male- and female-owned business." *Entrepreneurship and Regional Development* 10, 225~241.
- Carter, N. M., Williams, M. and P. D. Reynolds. 1997. "Discontinuance among new firms in retail: the influence of initial resources, strategy, and gender."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12, 125~145.
- Cliff, J. E. 1998. "Does one size fit all? exploring the relationship between attitudes towards growth, gender, and business size."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13, 523~542.
- Coleman, S. 2000. "Access to capital and terms of credit: a comparison of men- and women-owned small businesses." *Journal of Small business management* 38 No.3, 37~52.
- Degryse, H. and P. V. Cayseele. 2000. "Relationship lending within a bank-based system: evidence from European small business data." *Journal of Financial Intermediation* 9, 90~109.
- Fay, M. and L. Williams. 1991. "Sex of applicant and the availability of 'start-up' finance." *Australian Journal of Management*, 16, No.1, 65~73.
- Green, A. 2003. *Credit guarantee systems for small enterprises: an effective instrument to promote private sector-led growth*, UNIDO(신용보증기금 휴김, 『중소기업 신용보증제도-외국의 운영사례와 평가』).
- Heilman, M. E. and J. J. Chen. 2003. "Entrepreneurship as a solution: the allure of self-employment for women and minorities." *Human Resource Management Review*, 13, 347~364.
- Haynes, G. W. and D. C. Haynes. 1999. "The debt structure of small businesses owned by women in 1987 and 1993." *Journal of Small Business Management April*, 1~18.
- Jimenez, G. and J. Saurina. 2004. "Collateral, type of lender and relationship banking as determinants of credit risk." *Journal of Banking and Finance* 28, 2191~2212.

- Lascocco, K. A., Robinson, J. and J. K. Allen. 1991. "Gender and small business success: an inquiry into women's relative disadvantage." *Social Forces* 70, No.1, 65~85.
- Maltby, S. 1996. "Banks and the woman business owner: dissolving the paradox." *Vital Speeches of the Day* 62, No.6, 186~188.
- Marlow, S. and D. Patton. 2005. "All credit to men? entrepreneurship, finance, and gender."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29, No.6, 717~735.
- Orban, M. 2001. "Women business owners in France: the issue of financial discrimination." *Journal of Small Business Management* 39, No.1, 95~102.
- Rietz, A. D. and M. Henrekson. 2000. "Testing the underperformance hypothesis." *Small Business Economics* 14, 1~10.
- Powell, M. and D. Ansic. 1997. "Gender differences in risk behavior in financial decision-making: an experimental analysis." *Journal of Economic Psychology* 18, 605~628.
- Rajan, R. G. 1992. "Insiders and outsiders: the choice between informed and arm's-length debt." *Journal of Finance* 47, 1367~1400.
- Shaffer, S. 1998. "The winner's curse in banking." *Journal Financial Intermediation* 7, 359~392.
- Sharp, S. 1990. "Asymmetric information, bank lending and implicit contracts: a stylized model of customer relationship." *Journal of Finance* 45, 1069~1087.
- Watson, J. and S. Robinson. 2003. "Adjusting for risk in comparing the performance of male- and female-controlled SME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18, 773~788.

논문접수일: 2008. 03. 17

계재확정일: 2008. 05. 01